

틱낫한 스님, 파리기후협약의 '숨은 영웅'

피게레스 사무총장, "스님 철학 덕분에 성공적 협상 이끌어"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평가를 받고 있는 크리스티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사진). 그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인터넷언론 '하핑턴포스트'와 인터뷰서 "틱낫한 스님 가르침 덕분에 이번 협약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틱낫한 스님은 파리기후협약의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말했다.

피게레스는 전례 없는 196개국의 지지 속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 '화석시대의 점진적 종언 합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피게레스 사무총장이 당사국총회 개최와 합의문 도출에 5년 동안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피게레스는 자신의 지혜와 힘, 그리고 연민심을 기르는데 틱낫한 스님이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스님과 인연을 들려줬다.

"3년 전 저는 개인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수천 명의 추종자를 두고 있는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는 '아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게레스는 틱낫한 스님의 불교철학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협약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그가 성공적인 협상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 스승인 틱낫한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진출처=businessgreen

힘든 시절 틱낫한 사찰 방문 지혜 갖추며 본업 집중케 해 5년 간 '마라톤협상' 의지치로 세계 시니어리더들 지지 받아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 문제는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에서 90억 명 혹은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년간의 긴 마라톤협상을 하는 동안 세계 휴식이라고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지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만와 틱낫한 스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못했을 뿐 아니라 제 임무에 헌신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게레스는 독일 발드브롤(Waldbröl)에 있는 틱낫한 스님의 사원을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발드브롤 수도원은 원

래 700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던 공간으로, 2차 대전 당시 나치부대가 그곳의 환자들을 몰살 시키고 히틀러 청소년 부대를 위한 장소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틱낫한 스님은 그 장소에 사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사랑으로, 희생자는 승리자로, 증오는 사랑과 용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 장소에서 일어난 비인간적이고도 잔인한 일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틱낫한 스님이 사원을 세우고 처음 한 일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낭독하게 한 것이다.

"우리 승가 공동체는 이곳에서 부당한 일들로 고통 받았던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또한 고통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연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스스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승가공동체를 지지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통 받는 장소를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게레스는 "이 일화는 내게 굉장한 충격이었다. 기후협약도 마찬가지로 서로 비난하는 것에서 협력으로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이라며 "틱낫한 스님의 일화는 속수무책의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은 서구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이끄는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모든 불교는 삶에 참여한다"는 참여 불교(engaged Buddhism) 운동을 주창하며, 민중의 고통을 덜어 주는 실천적 사회운동을 펼쳤다.

베트남전쟁 때는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사회청년봉사학교를 열어 계속 봉사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받았으나, 불교 평화 활동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다.

이어 1975년 파리 근교에 '스위트 포테이토'를, 1982년 보르도에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를 각각 세우고 명상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비구·비구니들과 평화 및 참여불교 운동을 전개했다. 1990년에는 미국 버몬트주(州)에 승원(僧院) '단풍림'과 수행원 '그린 마운틴'을 설립하고, 이후 프랑스·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오가며 계속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웨블로 징역 뉴질랜드男 '대통령 사면'

2015년 '불교 모욕죄'로 2년 6개월 형 선고 공범 2명 함께 풀려나... 뉴질랜드 이승 예정



일명 '불교 모욕죄'로 지난해 구속됐던 뉴질랜드 남성 필 블랙우드(33·사진)와 공범들이 지난 1월 22일 대통령 특사로 사면됐다. 사진출처=ASIAN Correspondent

미얀마에서 일명 '불교 모욕죄'로 구속됐던 뉴질랜드 남성과 공범들이 사면(赦免)으로 풀려났다.

아시아소식지 'ASIAN Correspondent'는 1월 22일 "미얀마 내에서도 악명 높은 양곤(Yangon) 지역 인세인(Insien) 교도소에서 101명이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가운데, 필 블랙우드(Phil Blackwood)와 그 일행들이 있었다"며 "블랙우드는 즉시 양곤 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필 블랙우드(33·뉴질랜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헤드셋을 착용한 채 환각상태에 빠진 모습의 부처님 그림을 게재하며, 불교 모욕죄 혐의로 2015년 3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술집 매니저로 일하던 블랙우드는 공범이자

매장 동료인 툰 테레인(Tun Thurein), 흐트 코코 린(Htut Ko Ko Lwin)과 함께 그림을 매장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한때 미얀마 내에선 블랙우드의 사면을 두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블랙우드와 공범들 행위는 미얀마 불교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몰지각한 태도서 비롯된 것으로 사면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애초 징역 선고 자체가 지나쳤다는 반론이 있다.

이와 관련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조 레인(Jo Lane)은 "이번 사건은 '종교 모욕법' 집행이 드물 뿐 아니라, 구형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더욱 큰 이목을 끌었다"면서 "더구나 외국인에 의해 자행된 웨블로이기에 때문에 대부분 불교도인 미얀마 국민들의 '법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박이름 기자

"우주와 불교 배우고 싶으면 우리 절 오세요"

일본 스님, 사찰에 '플라네타륨' 설치해 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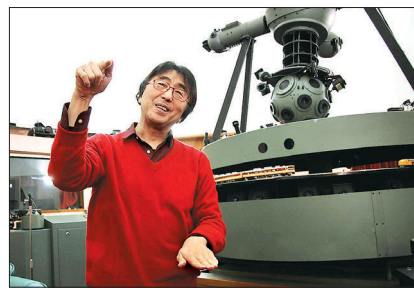
독특한 방식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사찰이 일본에 있어 화제다.

온라인 매체 '마더보드(Motherboard)'는 1월 21일 "사찰에서 우주와 불교에 대해 강의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승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도쿄 인근에 있는 쇼간지사 주지인 료 카즈가 스님이다. 그는 승복대신 청바지와 붉은 점퍼를 입고 사찰 경내에 플라네타륨(천체투영관; 천문 영상이나 천체를 반구형 스크린에 투영하는 돔형 극장)을 설치,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천문학 및 불교를 가르친다.

"일본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적습니다. 향후 10년 내로 그들의 관심이 크게 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즈가 스님은 우주와 불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그는 "실제로 우주와 불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플라네타륨은 불교에 관심 없는 이들에게 관심을 끌어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사찰에 '그냥'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찰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유년시절 카즈가 스님은 천문학자가



쇼간지사 주지 료 카즈가 스님은 경내에 플라네타륨(천체투영관)을 설치하고,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천문학과 불교를 가르친다. 사진출처=마더보드

되길 원했다. 하지만 승려인 아버지 영향으로 그는 4살 때부터 불교교육을 받아 꿈을 포기해야 했다.

일본 불교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는 이탈리아로 떠나 음악을 공부했다. "저는 불교가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본의 스님과 사찰은 시종돈에만 관심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학중 그는 부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귀국하게 됐다. 그가 일본에 오자마자 부친이 사망하면서 그는 쇼간지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

그는 "신도들 시종돈으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막연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그래서 불교 가르치는 법을 개혁하게 해달란 조건을 내걸고 쇼간지사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밀수입에 희생된 거대 코끼리... 극락왕생 발원
스리랑카가 3년 전 포획한 코끼리 상아를 1월 26일 행정수도 콜롬보(Colombo) 칼레 페이스 그린(Galle Face Green) 해변에서 공개적으로 분쇄·폐기하고, 스님들은 도살된 코끼리를 위한 천도식을 거행했다. 도살된 코끼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로부터 케냐, 두바이를 거쳐 스리랑카로 넘어와 콜롬보 항구에서 포획됐다. 총 중량은 1,529kg으로, 359개 상아를 지녔다. 스리랑카 코끼리 상아는 약 300만 달러(한화 약 301억 원) 가치다. 한편, 이번 코끼리 상아 폐기는 1989년 이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된 '코끼리 상아 밀수입' 문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결정됐다. 코끼리 상아는 약용 및 장신구 용도로 수요가 높아, 아시아 지역에서 밀거래 사건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사진출처=NEWSMAX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값 15,000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각권 12,000원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탱화 청동불상 전문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